

## 『서울人口史』 서울역사총서 제5권

차 명 수

### I

이 책은 선사 시대 이후 현재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서울 지역의 인구변동을 묘사 설명하고 있다. 이런 오랜 기간에 걸친 인구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시도다. 이 책은 서울역사총서의 일환으로 역사학자, 사회학자, 인구학자들이 공동 집필했는데 인구 변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기보다는 인구변화와 사회 변화 사이의 관계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다. 이 책은 충실, 고대 및 중세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를 다루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우선 다음 절(II)에서 이 책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 이 책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덧붙이겠다 (III).

### II

『서울人口史』는 2장에서 수량적 인구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선사시대가 후 고려시대까지의 인구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선사시대의 인구는 한강유역에서 발견된 ‘집자리’라는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삼국 및 고려시대의 인구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고문헌에 나타난 기술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성 백제 시대에 관해서는 『주서』 통일신라시대에 관해서는 『신라장적』, 고려시대에 관해서는 『고려사절요』 등의 사료 이용해서 서울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설명하고 서울지역의 인구수를 유추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구에 관한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의 인구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즉 조선 천도 당시의 인구는 10만 명, 세종 재위 시는 15-20만 명이었는데, 이후 (연산군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울주변부의 꾸

준한 인구유입으로 서울 인구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임진왜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인구규모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수록된 호구 총수를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서울인구에 관한 기존연구를 ‘인구증가설’과 ‘인구정체설’로 나누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두 주장의 내용이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구변동추세에 관해서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조선후기 서울인구는 18세기말 30-35만명 정도로 증가한 이후, 이 수준에서 19세기 말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서울이 상업도시화하면서 서울 인구는 증가했고, 그 결과 인구구성 및 행정구역의 재편, 신분제적 갈등, 도시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

제 4장은 우선 조선사회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노출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개항기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 시기에 외국인 특히 청국인과 일본인의 서울 유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서양의학의 도입됨에 따라 유아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시기를 인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본다. 또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등 정변과 전쟁으로 이 시기에는 지역간 인구이동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또 정부가 불완전하나마 근대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 일환으로 호적제도의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식민지시기에는 근대적 호적제도가 도입되고 근대적 인구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기다. 따라서 식민지기의 인구 변동에 관해서는 수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우선 1914년에 단행된 행정구역의 축소와 1920년대와 1930년대 중반의 행정구역확대 등 행정구역의 개편이 서울 인구 변화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본다. 특히 조선인 인구가 그랬는데 이와는 달리 일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필자는 이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및 민족간 차별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식민지기에는 서울 인구 구조가 전형적인 근대적 도시형으로 변모했다. 일본인 인구의 비중이 다른 도시보다 높으며, 1차 산업의 인구 비중이 크게 감소하며, 공업 및 상업, 교통업에 종사하는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의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에서 인구가 유입되었고, 상경한 조선인들이 도시빈민층을 형성했으며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체 책 분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부문은 해방 이후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는 1945~60년, 1960~80년, 1980~2000년, 미래의 인구 등 네 시기로 나뉜다. 우선 1945~60년의 기간 서울의 인구 변동은 필자는 인구학적 요인보다는 해방, 분단, 전쟁이라는 정치 사회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된 ‘고출산 저사망’으로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서울 인구 변화는 대부분 정치 사회적 충격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이전 해방과 분단으로 서울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전쟁기의 사망과 이동으로 195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인구 증가율이 다른 도시인구 증가율보다 낮았다. 일본인 귀국, 해외귀환동포의 귀환, 북한인구의 서울유입 등으로 이산가족의 증가, 배타적 소가족주의의 공고화, 지역공동체의 해체, 핵가족화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오늘날의 사회 및 가족구조 및 이념을 형성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치 사회적 충격들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 대신 베이비 붐, 농촌의 유희인력의 도시 유입 때문에 ‘서울 일극 집중화’가 시작되었다. 인구의 급증으로 서울에서는 실업문제, 주택, 도로, 녹지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의 문제, 교육,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1960~80년대 경제발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서울유입이 급증하면서 서울은 본격적으로 ‘메트로폴리스’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서울인구의 급증은 서울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로운 부심지의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을 둘러싼 주변지역의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1970년 중반을 전후하여 수도권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대연합도시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가족계획의 실시가 확대되면서 ‘다산소사’에서 ‘소산소사’로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서울의 결혼연령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승했고 그래서 출산율은 낮았지만, 서울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서울인구의 인구과밀화는 주택부족과 빈민주택의 증가, 실업 및 특정산업으로의 노동력 편중, 환경문제, 교통문제, 계층간 위화감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노동운동 및 빈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서울의 과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1980~2000년대에는 1960년대부터 감소하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이후 대체 수준이하로 감소하게 되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기대수명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75세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은 전국평균에 비해 정장년층의 비중이 높아 고령화의 정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고령화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주변 신도시의 개발로 서울 인구는 199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 이 시기에는 서울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지역간 사회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산업구조의 개편, 강남개발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강남에 중상류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면서 거주지 별 불평등화가 진행되었다.

이 책은 21세기 서울의 미래상을 예측하면서 막을 내리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인구는 2000년에 비해 약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의 대도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및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의 인구 전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인구의 연령별 구성도 변화시킬 것이다. 유소년의 비중이 감소할 뿐 아니라 15-64세의 경제 활동 인구비중도 2000년 76.1%에서 2030년에는 66.2%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노동력의 부족을 유발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공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력 향상이나 새로운 노동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30년에는 22.3%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경제 성장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고 노동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자는 출산율 상승 유인 제공, 유아보육사업의 확충을 통한 여성인력의 적극활용, 정년연장을 통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필자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규제를 통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산업의 지방이전의 추진, 중소도시와 농어촌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도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의 정비, 거주지역의 다핵화 등을 제시한다.

### III

전체적으로 이 책은 서울 인구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업적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울의 인구변동을 평이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용 가능한 자료로 보거나 현재의 연구 진전 상황으로 보아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장기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서울 인구에 관심을 갖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책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사시대의 유적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인구를 추정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작업인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수량적 자료가 있고 연구도 진전되어 있는 조선시대부터 서술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책에도 다른 많은 역

사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정서와 좌익 사관에 바탕을 둔 근거 없는 해석과 기술이 곳곳에 스며들어있다는 점이다. 가령 서울로의 인구 집중현상을 식민지의 경제적 침탈, 해방 이후의 경제개발 지상주의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조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혼잡 비용, 환경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문제들을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지고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도 보인다. 가령 앞으로 서울의 출생율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지역의 인구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